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LAST STOP TOKYO
가제 : 다음 정거장은 도쿄
저자 : James Buckler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7년 8월 24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 독일 판권 계약 체결,
- *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생생한 인물, 배경 장소에 대한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 있는 놀라운 데뷔작
- * 소설 「I Am Pilgrim」, 「The Beach」, 「Shantaram」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스릴러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줬다면,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욕구가 솟구친다. ‘취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는 표현처럼,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사라지고픈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곤 한다. 그 욕구를 실행에 옮긴다면, 삶이 다시 영점으로, 깨끗한 백지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영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젊고 유능한 변호사로 잘나가던 알렉스 말로이는 그럴 수 있다는 확신으로 도쿄로 향했다.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가득한 런던에서 9600킬로미터도 넘게 떨어진 곳이야말로 새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 알렉스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무엇이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야 했는지 아는 사람도 없는 곳. 알렉스는 도쿄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하고, 그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나오코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비자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도쿄 공항에 내린 알렉스는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외국인이었다. 편안한 얼굴표정, 세관 직원의 질문에 주소며 일자리, 비자 연장에 관한 이야기까지 아무 망설임 없이 척척 대답하고 마침내 공항 바깥으로 나간 그는 가깝게 지내온 친구 히로를 불러낸다. 비가 내리는 도쿄의 밤, 두 사람은 술집에 들어가 술을 퍼 마시기 시작하는데 히로만 취할 뿐 알렉스는 멀쩡하다. 취기가 오르자, 히로는 내내 이상하게 여기던 일을 알렉스에게 꺼내놓는다. 왜 변호사라는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일본에서 고작 선생님이로 살려고 하는지, 런던에서 대

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지 히로는 질문을 쏟아내지만 알렉스는 특유의 침착함으로 모든 의심을 부정한다. 곧이어 도착한 나오코. 히로와 어릴 때부터 아래윗 집에 살면서 남매처럼 살아온 나오코 야마모토는 인사불성이 된 히로를 보며 누나처럼 꾸짖고, 알렉스와 함께 히로를 아픈 엄마가 홀로 누워 아들만 기다리는 히로의 집으로 그를 부축해 데려간다. 알렉스는 고급 빌라가 즐비한 동네에서 돈 걱정 없이 살았을 것만 같던 히로가 그토록 허름하고 오래된 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깜짝 놀란다. 나오코는 원래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은 다르게 마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로처럼 알렉스의 묘한 구석을 찌르기 시작한다. 분명 그에게 마음이 있는 그녀는 얼마 후 알렉스가 런던으로 돌아가버리면 혼자 남겨져 가슴 아파할 것이 뻔하고, 그럴 바엔 더 가까워지지 말자는 말로 알렉스의 결단을 은근히 유도하지만, 알렉스는 차마 진실이 입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영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도쿄를 떠날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어느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나오코는 서서히 알렉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새 삶을 위해 무조건 납작 엎드려 조용히 살기로 했던 알렉스의 굳은 결심은 낯선 도시 도쿄에서 평생 도쿄만 알고 살아온 나오코로 인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자신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비밀을 감춘 나오코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알렉스는 뒷에 제 발로 들어간 꼴이 되고 만다. 순진한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 더 내려갈 곳도 없다고 절망할 때 훨씬 더 깊은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다.

탄탄한 구성과 살아 숨쉬는 인물들, 이국적인 장소에서 가느다란 희망을 잡으려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롤러코스터 같은 사건을 흡입력 있게 그린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임스 버클러(James Buckler)는 잉글랜드 남서부에서 태어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MTV, BBC Film 등 영화, TV 분야에서 촬영 후 편집 전문가로 수년간 일했다. 미국,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런던에서 살고 있다.

제목 : I HATE EVERYONE BUT YOU

가제 : 너 말곤 다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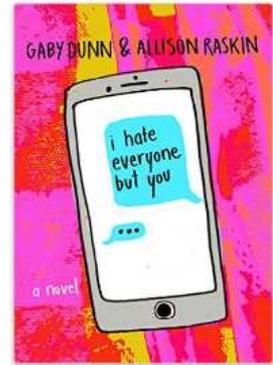
저자 : Gaby Dunn, Allison Raskin

출판사: Wednesday Books

발행일: 2017년 9월 19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소설/ 여성 소설, 코믹 소설



- * 경매 수십 만 달러로 출판 계약 체결
- * 실제 절친 사이인 두 저자가 구독자 75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익히 입증된 유머 감각과 센스 넘치는 표현력을 담아 완성한 데뷔작
- * 멀리 떨어져 사는 두 친구가 주고 받은 편지, 문자로만 구성된 독특한 소설

같은 날 한 시간 이내에 같이 세상을 떠나기를 소망하는 두 익살꾸러기 친구가 꼭 자신들과 같은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완성했다. 개리와 앨리슨, 두 저자의 이름 첫 알파벳과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주인공, 젠과 아바는 끔찍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내며 단짝이 되었다. 싫어하는 친구부터 좋아하는 연예인까지 꼭 같아서 온종일 붙어 다니던 두 사람은 대학생이 되면서 헤어지고 말았다. 한 명은 보스턴, 다른 한 명은 로스앤젤리스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광활한 미국 대륙의 반대편에 각자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젠과 아바는 그 아쉬움과 서로의 빈자리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차곡차곡 채워나가기 시작한다. 두 사람이 막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자잘한 사건부터 심각하고 중요한 변화, 하나 둘 생겨나는 새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까지 점점 풍성해진다. 물론 성인이 되어 처음 찾아온 사랑과 가슴 아픈 상처, 더 넓은 세상에서 성장해나가는 과정, 자기발견에 대한 이야기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게 젠과 아바는 일상을 공유하지만 정말 이런 방식으로 우정을 돈독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 못 사람들의 생각처럼,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우정도 힘을 잃는 건 아닐까?

아바와 젠은 저널리즘을 공부하러 젠이 보스턴으로 떠날 날을 받아 놓은 어느 날, 대학 생활을 이메일로 촘촘히 이야기하자는 계획을 세운다. 젠이 떠나기도 전부터 아바는 우등생이 되어 1년 정도 빨리 졸업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종용한다. 저널리스트란 직업이 좋은 이유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것 아니겠냐고 험박하는 아바의 글로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갈 무수한 이메일의 첫 장이 시작된다. 젠은 낯선 도시의 공항에서 만난 택시기사 이야기부터 아바의 아버지가 팀이라고 귀땀해준 보스턴 생활정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아바에게 모두 일러바친다. 친구를 떠나 보낸 아바 역시 집에서 정확히 20 킬로미터 떨어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첫 등교할 준비를 하면서 고작 그 거리로 가는 자신을 보고 슬퍼하는 엄마의 어이없는 반응을 젠에게 일러바친다.

대학 새내기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의 일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젠은 파티에서 그리

운 친구 아버지와 꼭 닮은 여학생을 발견하고 취한 상태로 다가가 그 사람 얼굴을 양손으로 부여잡는 실례를 범하는가 하면, 그 창피한 사건을 새벽 두 시에 아버에게 고백한다. 학교의 첫 날은 중학교 첫 날 두 사람이 콜라를 쏟는 작은 소동을 계기로 친구가 된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고, 젠은 아버가 자신의 실수로 새하얀 티셔츠에 콜라를 뒤집어쓴 그 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리워한다. 당시 젠은 너무 미안해하며 가디건을 내밀었지만, 아버는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여학생이 똑같은 가디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얼룩진 티셔츠를 고수했다.

새로 만난 친구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젠은 룸메이트가 첫 날부터 얼마나 어이없게 구는지 그 모든 황포를 아버에게 낱낱이 고한다. 처음에는 자신이 오른쪽 침대를 쓸 테니 젠더러 왼쪽을 쓰라고 하더니, 젠이 꼼꼼히 청소를 마치고 개인 물건을 다 정리한 뒤에 갑자기 침대 좀 바꿔주면 안 되냐고 난리를 쳐서 젠을 분노하게 만든다. 아버 역시 다른 친구들과 파티를 다니면서 남자들이 거는 뻘한 수작에 넘어가는 알 수 없는 친구와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뽐뽐이 밝히는 친구 이야기를 젠에게 모두 전한다.

두 코미디언이 쓴 글이지만 절대 유치하거나 가볍지만은 않다. 쓸모 없이 떠드는 것 같은 두 친구의 이야기 속에는 순간순간 각자가 느끼는 미세한 감정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고, 이것이 대화체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라는 형식 덕분에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아프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두 절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담아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앨리슨 라스킨(Allison Raskin)과 개비 던(Gaby Dunn)은 로스앤젤리스에서 코미디언, 작가로 활동 중이며 서로 절친한 친구 사이다. 유튜브에서 '저스트 비트윈 어스(Just Between Us)'라는 코미디 채널을 함께 시작하고 구독자 75만 명, 총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각자 버즈피드(Buzzfeed), 소스페드(Sourcefed), 풀스크린(Fullscreen)과 같은 사이트에서도 재미 있는 글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개비 던은 「페이퍼 매거진(Paper Magazine)」에서 최고의 코미디언 1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며 「뉴욕타임스」, 「코스모폴리탄」, 「뉴욕 매거진」, 「보스턴 글로브」 등 유수의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YOU'LL NEVER KNOW, DEAR

가제 : 아가, 넌 아무것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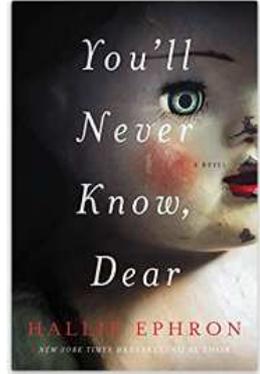
저자 : Hallie Ephron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7년 6월 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 “할리 에프론은 비밀 이야기의 여왕이자 교외를 무대로 한 누아르의 대가다” – 「**SAY NO MORE**」의 작가 **헝크 필리피 라이언**
- * “할리 에프론의 소설이 긴장감을 주는 이유는 등장인물이 너무나 생생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꼭 실제 인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 「**보스턴 글로브**」
- * **어린 소녀의 실종, 진실의 열쇠를 쥔 도자기 인형과 3세대에 걸친 비극적 운명을 그린 스릴러**

“딱 1분만 놀고 들어와.” 일곱 살 엘리자베스와 네 살짜리 여동생 제이니가 집 앞마당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았다. 인형 만드는 일이 직업인 엄마가 두 딸을 위해 정성껏 특별히 만들어 준 인형들을 데리고 엘리자베스와 제이니는 밖으로 나갔다. 동생을 잘 지키라는 엄마의 말 때문에 어린 엘리자베스는 좀 짜증이 났다. 데이비도 있고, 샘도 있고, 마이클도 있는데 왜 엄마는 맨날 자신에게 제이니의 ‘엄마’가 되라고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형들을 신발상자에 고이 누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 희고 검은 얼룩무늬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앞마당에 뛰어 들어왔다. 엘리자베스는 벌떡 일어나 집 뒤쪽으로 달려가는 강아지를 따라갔다. 하지만 하얀 꼬리는 금새 시야에서 사라지고,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인형들에게도 애완동물을 만들어주자!” 뒷마당 앞은 개천에 마침 개구리와 노란 점이 몸에 콕콕 박힌 도롱뇽이 눈에 들어왔다. 신발을 온통 적셔가며 바위를 조심스레 밟고 작은 손으로 그 신기한 동물들을 잡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붙잡는 데 성공한 엘리자베스는 고이 들고 다시 앞마당으로 나갔다. 제이니도 제이니가 가지고 놀던 인형도 보이지 않기에 엘리자베스는 귀중한 1분이 다 끝났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제이니는 집 안에도 집 근처 어디에도 없었다. 그 날 이후, 제이니와 인형은 가족들 곁에 돌아오지 않았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40대 중반이 된 엘리자베스는 동생을 잃어버린 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처를 부둥켜 안고 겨우 살고 있었다. 그때 한눈 팔지 않았더라면, 제이니를 지킬 수 있었다는 부질없는 후회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본명보다 인형 제작자 ‘미스 소렐’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엄마는 그토록 좋아하던 일, 기막힌 솜씨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일을 다 접고 집 안 곳곳에 전시된 옛 작품들을 손보고, 고치고, 다시 색을 칠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주 짧은 순간이 행복을 가장 비참한 고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한 엘리자베스는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딸 바네사에게 그 불안감을 모두 드러냈다. 바네사가 어릴 때는 바로 옆집 친구 집에 가는 것조

차 불안해서 늘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왔고, 성인이 되어 일 때문에 다른 집에 살게 되자 몇 시간을 참지 못하고 문자나 전화로 무사한지 확인해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도하는 마음도 잠시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엄마와 아빠는 제이니가 사라진 후 어떻게든 아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미스 소렐은 매년 제이니가 실종된 날마다 신문에 함께 사라진 인형 사진과 함께 목격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다. 제보자에게는 두둑한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도 물론 함께였다. 하지만 그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형을 봤다는 제대로 된 연락은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미스 소렐의 인형이 특히 유명했던 이유는 도자기로 빚어낸 얼굴 표정이 진짜 어린아이 얼굴과 느낌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런 인형을 처음 만든 것도 딸 엘리자베스와 제이니를 닮은 인형을 만들면서부터였다. 그래서 제이니와 함께 없어진 그 인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작품이고, 누구도 똑같이 만들 수 없기에 제이니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단서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이니는커녕 이 흔치 않은 인형을 본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아 가족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그런데 딱 40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인형의 행방을 안다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깨진 인형 조각을 들고 미스 소렐과 엘리자베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제이니의 인형을 갖고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 미스 소렐이 아이가 사라진 뒤에도 이어가던 인형 제작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랜 세월 끔찍히 묶여 있던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새어 나오지만, 그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암담하고 끔찍하다.

한 소녀의 실종을 시작으로 3세대에 걸쳐 한 집안의 여성들에게 찾아온 비극 같은 운명을 그린 중독성 강한 서스펜스 소설이다.

<저자 소개>

할리 에프론(Hallie Ephron)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Never Tell a Lie』, 『Come and Find Me』, 『There Was an Old Woman』을 쓴 작가로 「보스턴 글로브」에서 미스터리/범죄 소설 리뷰어로도 활동 중이다. 위 세 권의 소설은 매리 히긴스 칼락 상(Mary Higgins Clark Award) 결선에 올랐으며 글쓰기 비결을 정리한 논픽션 『Writing and Selling Your Mystery Novel: How to Knock 'Em Dead with Style』은 2006년 에드가 상(Edgar Award)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A STATE OF FREEDOM

가제 : 자유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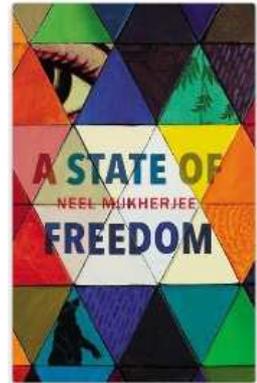
저자 : Neel Mukherjee

출판사: Chatto & Windus

발행일: 2017년 7월 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소설



- * 『The Lives of Others』로 2014년 맨부커 상과 코스타 상 결선 진출작을 쓴 작가의 신작
- * 현대 인도를 배경으로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설

누구나 한번쯤은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늘 꿈꾸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맞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 내밀한 욕구를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현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발버둥친다면, 타고난 것, 태생까지 바꿀 수 있을까? 2014년 맨부커 상 결선작을 쓴 작가로 이름을 알린 닐 무커지는 주어진 삶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구를 현대 인도사회를 배경으로, 여러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통해 조명한다. 안정된 기반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민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현실을 날카롭게 묘사하며, 선택의 여지를 놓쳐버린 인생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애쓰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느 때와 같은 캘커타의 어느 저녁, 식구마다 운전기사가 딸린 차가 있고 크고 작은 집안일은 여러 하인들이 다 돌봐주는 대저택에도 어스름이 내려 앉았다. 저녁 식사시간을 앞두고 이 집에 사는 아들과 아버지가 매일 저녁 식사 전에 마시는 위스키 소다를 한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요리사인 레누가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다. 아들은 누나 뺨인 레누를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다. 빈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그녀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쳐 당장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을 길에서 떠돌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레누의 가족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심으로 두 시간이 넘게 쫓아다녔고 그 바람에 온 식구가 밤새 노숙을 해야만 했다. 레누는 잠을 한장도 자지 못한 상태로, 저녁마다 출근하는 이 집에 일찍부터 도착했지만 출근 시간이 되지 않아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주인 내외도 현관으로 나와 이야기를 듣더니, 오늘 저녁식탁은 알아서 할 테니 좀 쉬라고 배려해준다. 레누는 이런 상황이 영 편하지가 않다. 주인집이 하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염려하는 일이 워낙 드물기에, 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부터 든 것이다. 끝내 할 일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레누를 세 사람이 뜯어말리고, 아들은 레누에게 또 쫓겨나는 일이 생기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 있으라고 이야기한다. 기절할 것처럼 쓰러져 쉬는 레누를 보면서 주인집 아들의 머릿속에는

묻고 싶은 것들이 무수히 떠오른다. 빈민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자다가 그렇게 끌려 나와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비 대신 홍수라도 나면 다들 어디에서 지내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인도인이지만 말을 시작하면 영어 억양이 짙게 배어 있는 남자는 아들을 데리고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 인도 동부 해안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학자로 살아온 그는 인도인의 피가 흐르지만 뺏속까지 미국인인 어린 아들과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오늘 하루 대절된 택시에 올라 다음 장소로 향한다. 아이는 읽을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평소와 달리 입을 꼭 다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남자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어른들에게 듣고 자란 전설과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한 조형물이나 건물 장식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이 들지만, 아이가 어떤 눈으로 인도를 보고 있을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길에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물려드는 거지들, 어린 아이가 있다는 점을 노려 자기 아이가 며칠 째 굶고 있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여인들,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 택시 기사들의 능글맞은 표정, 몇 시간 전에 먹은 음식이 뺏속에서 요동치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남자는 어떻게든 아이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지쳐가고, 남자는 자신이 인도 인도 미국인도 아니라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 잡힌다.

나이도, 직업도, 지위도 모두 다른 여러 등장인물이 살아가는 인도의 모습은 빈곤과 양쪽으로 극명히 갈린 빈부 격차,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도 어려울 만큼 온갖 사고들로 가득하다.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작가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과 새로운 희망, 구원의 가능성을 가만히 보여준다. 작가는 어쩌면 이들의 삶이 잔인하다고 판단하는 시각 자체가 특권 의식이 스며든 우리의 오만한 시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버티고 생을 만들어가며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 소개>

닐 무커지(Neel Mukherjee)는 데뷔소설 『A Life Apart』 (2010)로 영국 작가조합(Writers' Guild of Great Britain)으로부터 최우수 소설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소설 『The Lives of Others』 (2014)는 2014년 맨부커 상과 코스타 최우수 소설상 결선에 진출했으며 앙코르 상(Encore Prize)을 수상했다. 이 두 번째 소설은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현재까지 85,000부 이상 판매되었다.

NON- FICTION

제목 : THE ONLY INVESTMENT GUIDE YOU'LL EVER NEED

가제 :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단 한 권의 투자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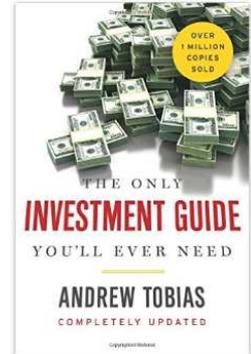
저자 : Andrew Tobias

출판사: Mariner Books

발행일: 2016년 4월 26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경제(투자)



- *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단 한 권의 투자 가이드라는 이름 값을 톡톡히 하는 책”- 「LA 타임즈」
- * “앤드류 토비아스는 금융계 인사 중에서 자신의 견해와 관찰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함축성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포브스」

38년 전에 처음 출간된 후 미국에서만 100만 권이 넘게 판매되며 가장 유익한 투자 가이드로 자리 잡은 책이 판도가 완전히 바뀐 정세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됐다. 뉴욕의 주식 거래량이 하루 평균 2,500만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급증한 현 시대에는 분명 전과는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개인 투자자가 숙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에 저자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인정 받은 투자의 핵심에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 시장에서 개개인이 최선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는 목돈을 모으기 힘들데 집값이며 자녀 양육비 등 큰 돈이 필요한 일은 계속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축보다 투자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투자 요령이나 각종 팁을 알려준다는 책들이 서점에 무수히 쏟아졌지만 전문적으로 투자에 뛰어든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모든 지침을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투자 가이드라고 당당하게 내건 이유는 다른 투자 안내서들의 내용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필요도 없고 별 도움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위험천만한 도전을 부추기거나 너무 복잡해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나열한 책들은 오히려 투자에 해가 된다. 요리책이나 체스 전략을 설명하는 책의 경우 많이 읽을수록 실력이 점점 좋아지지만 투자는 그 반대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투자 가이드를 세 권 읽었다고 해서 실력이 세 배로 늘어나는거녕 1/3로 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관찰은 숲을 찾으려면 그 안에 있는 나무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저자는 이 점을 바탕으로, 넓은 시야로 투자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위트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귀중한 투자 팁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짚어준다. 저축과 투자, 은퇴 준비까지 개인의 돈 관리 전반에 관한 센스 있는 조언이 가득하다.

<목차>

감사의 글

서문. 거시적 전망

1부. 최소 위험

1. “그렇게 똑똑하다면 이 책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진 않겠지!”
2. 1페니를 지키는 건 2페니를 버는 것과 같다
3. 일년에 16만 5,000달러를 벌 수 ‘있다’
4. 아무도 믿지 마라
5. 겁쟁이의 사례

6. 세금 전략

2부. 주식시장

7. 지금까지는 하향세
8. 중개인을 선택하라(그리고 무시하라)
9. 딱딱딱한 팁, 내부 정보 – 기타 중요한 포인트

3부. 가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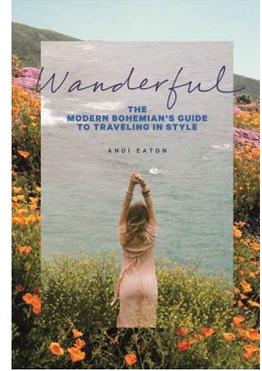
10. 모두 가족에게 달려 있다
11. 백만 달러를 물려 받았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부록

<저자 소개>

앤드류 토비아스(Andrew Tobias)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Fire and Ice』, 『The Invisible Bankers』를 비롯해 열두 권의 저서를 발표했다. 「타임」, 「에스콰이어」 등 여러 간행물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해 왔으며 PBS 시리즈 ‘Beyond Wall Street’에 공동 진행자로 참여했다.

제목 : WANDERFUL
가제 : 품 나는 방랑자
저자 : Andi Eaton
출판사: Abrams Books
발행일: 2017년 9월 12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여행/패션



*** 패션과 여행,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은 독특한 미국 여행 정보서**

*** 패션 전문가가 미국 곳곳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참신하고 감각적인 책**

우리가 흔히 '보헤미안 스타일'이라고 칭하는 것에는 비슷비슷한 것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과 자유로움을 당당하게 표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부분 패션에 보헤미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여행을 보헤미안처럼 해보면 어떨까? 어릴 때부터 여행에 푹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저자는 여행과 패션, 두 가지 모두를 보헤미안 스타일로 즐기는 법을 소개한 특별한 여행기를 완성했다. 광활한 미국 대륙 곳곳의 바다로, 사막으로, 숲을 방랑하면서 그 지역에서 패셔너블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과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 옷장에 어떤 옷들이 걸려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 특유의 감성이 스며든 패션을 분석하는 동시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안하고 이곳 저곳 둘러볼 만한 곳을 소개한다. 저자는 총 아홉 곳의 목적지를 정하고, 실제 여행을 떠나는 사진으로 대리만족을 하든 옷 잘 입는 친한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내용과 멋진 사진들로 각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영감을 얻기 위해 여러 곳을 방황하는 예술가들, 정해진 루트 없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보헤미안들은 점심을 어디에서 먹을까? 즐겨 찾는 빈티지 상점은 어디일까? 마지막 앵콜곡까지 열정적으로 해낸 음악가들은 늦은 밤, 공연의 열기와 긴장을 풀러 어떤 공간을 찾아갈까?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꾸민 모습으로 여행을 하고 인생을 즐길까? 새로운 영감을 찾아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예술가의 감성으로 여행을 바라본 저자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넉 달 간 미국을 여행했다. 모든 여행자가 참고하는 불변의 베스트셀러 여행기를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최고로 꼽히는 레스토랑이나 바, 박물관, 여행 경로를 먼저 살살이 파악한 후 여기에 각 지역 토박이들의 생활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을 더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세워진 여행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하고 독특한 곳,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패션 전문가들과 아티스트, 자유로운 여행자들에게 무수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장소들로 채워졌다. '처음 만나는 미국', 관광객의 입장이 아닌 마치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처럼 쇼핑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음악을 즐기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방법이 풍성하게 제시된다. 산, 계곡, 사막, 바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도로, 큰 도시와 작은 마을 등 여행자의 마음만큼 목적지도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다.

팜 스프링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뉴올리언스, 텍사스 서부의 사막 도시 마파 등 저자가 소개하는 여행지는 익숙하면서도 트렌디하고 낯설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진다. 얽매이지 않는 여행, 편안하고 여유 있게 새로운 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흡족해할 만한 여행서다. 굳이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멋진 풍경이 담긴 사진들을 구경하고 다양한 패션 아이디어를 얻는 재미도 쏠쏠하다.

<목차>

머리말

멋지게 방랑하는 삶을 만들어라

짐은 록스타처럼 챙길 것

1장. 태평양연안 고속도로

2장. 플로리다 연안

3장. 동부 해안

4장. 텍사스의 숨겨진 곳을 찾아

5장. 66번 국도

6장. 서부로 가자

7장. 남부 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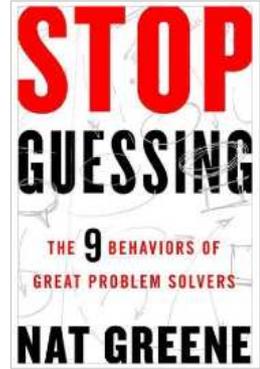
8장. 로큰롤 하이웨이

9장. 장대한 북서부

<저자 소개>

앤디 이튼(Andi Eaton)은 패션 전문가로 여행과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Oui We'를 운영하고 있다. 'Southern Coalition of Fashion & Design'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며, 「Southern Living」 매거진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미국 남부사람 75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제목 : STOP GUESSING
가제 : 추측은 그만
저자 : Nat Greene
출판사: Berrett- 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7년 4월 3일
분량 : 160 페이지
장르 : 경영/자기계발



- *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원칙을 예리하게 포착한 매력적인 책. 모든 엔지니어(그리고 기혼자, 부모)에게 추천한다!” – MIT 오픈 러닝(*Open Learning*) 부대표 샌제이 사르마
- *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한 해답을 추측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아홉 가지 핵심 행동을 알려준다. 학생들에게도 추천할 생각이다.” – 옥스퍼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말콤 맥쿨록

보기만 해도 당장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던져진다. 혹은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손을 대보니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 삶의 온갖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 동료, 친구들에게도 실망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20년 이상 어려운 문제 해결을 돕는 컨설턴트로 활약해온 저자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뿌리를 찾아가면 근본적인 원인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직접 파악한 아홉 가지 문제해결 핵심 행동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우리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고 고민하는 문제들은 ‘억측’과 소모적인 고민 때문에 더 엉키고 꼬이고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우리는 일단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추측’이 시작되고, 그 중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시도를 해본 다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본다. 그렇게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며 운을 기대하거나, 포기하거나, 대신 해결해줄 사람을 수소문한다. 저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경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외에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시장 지분을 높이려는 계획이나 제조 공정이 매우 복잡한 제품의 생산 시간을 줄이거나, 건강 문제로 엄격한 관리 계획을 지켜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중요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에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추측만 난무하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면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일이 직업인 전문가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아홉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집어내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그 문제로 인해 새로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와 귀중한 가치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자꾸 고장 나는 차고 문을 고치는 일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이 걸려 있는 화학공장의 장비 고장 문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는 방법에 이르

기까지, 저자는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심각하고 거대한 문제를 이 아홉 가지 원칙을 토대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상세히 보여준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도 훌륭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질없이 흘러 보내는 시간과 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알찬 정보서다.

<목차>

서문

머리말. 문제를 훌륭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되는 법

1장. 추측하지 마라

2장. 냄새부터 맡아보자

3장. 무지함을 인정하라

4장.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구분하라

5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파헤쳐라

6장.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마라

7장. 단순한 해결책도 많다

8장. 사실을 바탕으로 결정하라

9장. 목표를 잊지 마라

10장. 방법을 선택하라

11장.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자

<저자 소개>

넛 그린(Nat Greene)은 「컨설팅 매거진」에서 “최우수 소형업체”로 여러 차례 선정된 업체 스트라우드 인터내셔널(Stroud International)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이다. 18년간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5개 대륙, 50곳이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제목: THE MAKING OF MILLENNIALS

가제: 밀레니엄 세대의 탄생

저자: Malcolm Harris

출판사(에이전시): The Gernert Company

발행일: -

분량: -

장르: 사회



- * 정부도, 사회도 게으르고 오만하다고 비난하는 밀레니엄 세대를 대변하는 호소장
- * 열악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큰 꿈을 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밀레니엄 세대의 진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나 인터넷, 모바일, SNS가 생활에 당연한 일부분이 되고 대학 진학률도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은 세대, X세대의 뒤를 잇는 이들을 Y세대 또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칭한다. 사회학자들은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밀레니엄 세대가 주목 받는 이유는 현재 30대 중반에 이른 이들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우뚝 올라섰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소비 규모가 국가 전체 소비 규모의 20 퍼센트를 넘을 정도로 엄청난 구매력과 구매 잠재력을 지닌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다. 역사상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 첨단 기술에 능통하여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특징인 이들은 동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모 세대보다 배운 건 많은데 실질적인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은 나쁘다는 평가, 기존에 구축된 안정적인 생활 양식을 뒤엎어버리고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난, 미래의 젊은 세대가 더 극단적이고 제멋대로에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리라 예상하게 만드는 시초라는 맹렬한 공격이 수시로 가해진다. 1988년생 밀레니엄 세대인 저자는 가끔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런 혹평은 놀라움을 넘어서 끔찍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경험과 포괄적인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 독특한 세대의 진짜 모습과 탄생 배경을 이야기한다.

“게으르고 좋은 자격은 다 갖추고 오만하며 깊이가 없다”고들 이야기하는 밀레니엄 세대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잔인한 사회 시스템에서 태어나 효율, 경쟁, 저임금 노동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감독하고 챙겨주는 사람 없이 보내면서 자란 이들은 숙제와 스포츠 활동, 방과후에도 이어지는 각종 학습 활동에 내내 시달리다가 대학에 힘들게 입학한 순간부터 학자금이라는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 앉아야 했다. 그리고 인턴 제도라는, 실제 취업과 가까워 보이지만 무급 노동에 가까운 제도에 경력 한 줄 추가한다는 이유로 또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야만 했다. 사회학자들이 왜 밀레니엄 세대는 유독 가난하고 빚을 갚지 못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의심이 많은지 묻는다면, 바로 이와 같은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보다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지난 40년의 역사를 더듬어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을 형성시킨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인 변화를 꼼꼼히 분석한다.

태어날 때부터 성장 조건이 기존 세대와 판이하게 다른 밀레니엄 세대가 발버둥쳐온 노력과 사회의 인적 자원으로써 어떤 기능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날카롭게 조명한다. 열정 가득한 어조로 위트와 풍부한 지식을 골고루 섞어서 이 젊은이들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정부와의 관계,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밀레니엄 세대는 물론 그 부모 세대에게도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정보가 가득하며 비즈니스, 정계, 학계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많다.

<목차>

머리말

1장. 『대니 던과 숙제 하는 기계』

2장. 대학 생활

3장. 직장 생활

4장. 나라와 영국이다

5장. 모두가 스타

6장. 행동의 변화

결론

-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는 일곱 가지 징후
- 이권 하자!

<저자 소개>

말콤 해리스(Malcolm Harris)는 「퍼시픽 스탠다드(Pacific Standard)」의 칼럼리스트이자 「뉴 인콰이어리(The New Inquiry)」에서 편집 업무를 하고 있다.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 「북포럼(Bookforum)」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EVERYTHING ALL AT ONCE

가제 : 전부 하나로 모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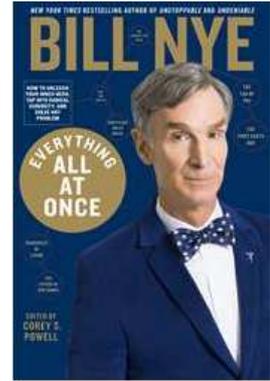
저자 : Bill Nye

출판사: Rodale Books

발행일: 2017년 7월 1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 출판사 열 곳이 참여한 경매에서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계약 체결
- * 오디오북 경매에도 5개 업체 참여, 수십 만 달러 규모로 계약 체결
- * 페이스북 팔로워 470만 명, 트위터 팔로워가 428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소개하는 세상 좀 덜 복잡하게 사는 법

정치적인 문제든 비즈니스 세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에서든, 정보화 사회를 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무수한 정보가 뜻밖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온갖 뉴스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해진 것이다. 흑백 논리로 문제를 양분화시키고 선입관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로 문제와 마주하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기보다 세계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일이 빈번하다. 심지어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특유의 유머감과 친숙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저자는 우리가 흔히 ‘범생이’, ‘좋아하는 일 하나밖에 모르는 괴짜’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단언한다. 다름 아닌 자신부터가 이 ‘괴짜 범생이’의 일원이라고 고백 하면서, 저자는 관련된 정보를 출처와 상관없이 몽땅 다 모아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만들어진 방법이든 모두 다 적용하고 활용해보는 이들의 집중적인 해결 방식이 어떤 분야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건 다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다채로운 시각과 다른 수많은 요소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찾기 위해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접근법은 특정 분야의 문제를 그 분야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분야에도 눈을 돌리게 만드는 융통성을 선사한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큰 문제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 하나를 찾기 전에 수십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분석하는 생산적인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 크게 생각하고 반드시 길은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와 같은 열정의 기반이 된다. 저자는 과학계에서 이 ‘괴짜 범생이’식 접근법으로 이루어진 여러 성공적인 문제 해결 사례를 들면서 복잡한 세상일수록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인터넷 세상에 매년 오가는 데이터는 셀 수가 없을 지경이고, 원하는 정보나 관심 가는 주제, 대상이 생기면 산더미 같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이토록 정보는 넘쳐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나날이 진화해 가는데, 인류 전체의 지능은 역방향으로 향한다.

다는 점이다. 여전히 날씨와 기후 변화를 썩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자연이 인간의 손에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연을 괴롭히지 않고 청정 에너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방법도 찾지 못했다. 교통사고나 치유할 방도가 없는 질병으로 사라지는 아까운 목숨들, 어느 한 곳에선 먹을 것이 넘쳐나서 문제고 다른 쪽에선 끼니를 때우지 못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불균형의 문제 역시 큰 난제로 남아 있다. 저자는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이 어려운 과제부터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까지, 괴짜 범생이처럼 무조건 해결하자는 결심으로 필요한 자료, 조언, 정보를 한 곳에 다 끌어 모아서 차근차근 길을 모색하다 보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머리를 맞댈 줄 아는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통행 규칙 / 감사의 말

1부. 괴짜 범생이의 세상 사는 원칙

- 1장. 파이의 도(道)
- 2장. 구조대원
- 3장. 바위에 부딪혔을 때
- 4장. 계산자 사용법 (이하 생략, 10장까지)

2부. 괴짜 범생이의 아이디어 실행법

- 11장. 압박의 즐거움
- 12장. 피라미드를 뒤집어놓는 디자인
- 13장. 코미디와 나
- 14장. 거짓말하지 마 (이하 생략, 20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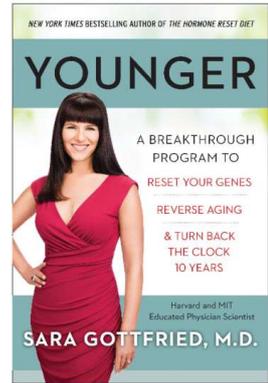
3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 21장. 사기꾼이세요?
- 22장. 얼마나 높이 갈 수 있을까?
- 23장. 교통사고의 비극
- 24장. 차갑고 단단한 얼음의 실제 (이하 생략, 30장까지)

<저자 소개>

빌 나이(Bill Nye)는 20년 넘게 과학을 모든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리는데 매진해 왔다.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판된 『빌 아저씨의 과학교실』, 『빌 아저씨와 함께 실험해요』를 비롯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UNDENIABLE: Evolution and the Science of Creation』 (St. Martin's, 2014), 『UNSTOPPABLE: Harnessing Science to Change the World』 (St. Martin's, 2015)를 썼다. 오는 4월 21일에는 인터넷 TV 넷플릭스에서 “빌 나이, 세상을 구하다(Bill Nye Saves the World)”라는 제목의 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목 : YOUNGER
가제 : 젊게 삼시다
저자 : Sara Gottfried
출판사: HarperOne
발행일: 2017년 3월 7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건강



- *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바꿔서 다시 건강해지고 병을 물리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그레인 브레인(**Grain Brain**)」의 저자 데이빗 필머터
- *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노화를 이겨내는 황금률을 알려주는 훌륭한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클린(**Clean**)의 저자 알레한드로 용거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는 먼 옛날부터 수많은 예술작품으로 구현될 정도로 인류의 찬탄을 불러 일으켰지만, 젊은 날의 그림 같은 실루엣이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윗대에서 알츠하이머병, 암, 심장질환을 앓았던 가족과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언제 자신도 그 병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하는데 이 역시 나이가 들수록 유전질환이 마침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들 생각한다. 날이 갈수록 몸 이곳 저곳에 쌓이는 셀룰라이트와 옆구리에 볼록 튀어 나오는 군살, 뱃살이나 가족력이 있는 중증 질환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피할 수 없을까? 두 권의 저서 모두 연이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저자는 DNA에 새겨진 유전학적 암호가 노화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진짜 원인은? 노화와 질병의 징후가 나타날 때 90 퍼센트 이상은 ‘생활습관’이 원인이다.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가 각자 가지고 태어나는 DNA보다 외형적인 변화는 물론 건강한 삶, 활동성, 신체 에너지에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저자는 이 중요한 원칙을 바탕으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노화의 시계를 바로 잡아 더 젊게 더 건강하게, 더 기운차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조목조목 알려준다.

유전학적으로 정해진 특징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저자는 강력한 생활습관의 변화로 모든 것이 예정된 것으로만 여겨지는 이 유전자의 영향을 꺾고 걸으며 젊어 보이는 것은 물론 스스로도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큰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근육, 뇌, 호르몬, 위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지방 등 총 다섯 가지 핵심 원인이 노화와 질병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먹는 음식과 수면, 운동, 배출, 드러내기, 진정시키기, 생각하기로 각각 구성된 7주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준다.

노화 방지의 진정한 의미는 수명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과 함께 건강도 함께 향상시키

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길어봐야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만 더 길어질 뿐이다. 저자는 일상적인 노력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우리의 몸이 겉과 속 모두 건강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전 생애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강력한 팁을 소개한다.

<목차>

머리말

- 1장. 유전자를 풀어보자
- 2장. 유전자와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
- 3장. 후생유전학: 유전자의 온/오프
- 4장. 뿌리를 찾아서
- 5장. 식습관 - 1주차
- 6장 수면 - 2주차
- 7장. 운동 - 3주차
- 8장. 배출 - 4주차
- 9장. 드러내기 - 5주차
- 10장. 가라앉히기 - 6주차
- 11장. 생각하기 - 7주차
- 12장. 통합

부록

- 레시피 / 유전자 가이드 / 중요한 유전자 톱7

<저자 소개>

새라 갓프리트(Sara Gottfried)는 하버드 대학교와 MIT에서 공부하고 의사, 강연자, 저술가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건강 전문가다. 8판까지 나오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Hormone Cure』 (Scribner, March 2013)는 출간 첫 주에 3만 부가 판매됐다. 이어 두 번째 저서인 『The Hormone Reset Diet』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중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브라질과 판권 계약이 체결됐다.